

국군방송을 찾아서

-국군방송의 40년 기술사-

김 상 훈
국군홍보관리소 방송기술과장

1. 서론

국군방송이 4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6.25 당시 격전장을 누빈 정훈, 방송요원들이 선무방송과 대적 심리전 방송이 우리의 국군용사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등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한바 큰 것으로 평가되어, 장병들을 위한 국군방송의 필요성이 절실했지자 휴전 이후 1954년 9월 1일 국군방송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정훈국 문화과에 방송을 전담할 방송계를 설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군방송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고 볼수 있다. 처음에는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했던 KBS 정동연주소 건물의 한칸을 빌려 그안에서 방송물을 제작하고 KBS 전파를 통해 “우리의 국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국군방송은 장병들에게는 국방의무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였고, 국민들에게는 믿음직한 국군상을 부각시키는 등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와 민·군 일체감 형성에 이바지 해왔다. 그로부터 43년이 지난 지금은 장년의 원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60년대 월남전 당시에는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로 해외 우리말 방송인 주월 한국군 방송국(KFVN)을 설치 운영하였고, 70년대에는 KBS-4FM으로 독자 FM 방송망을 확보하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끝에 수도권 이북으로 10개의 송·중계소를 지닌 중견방송으로 성장하였다.

수도권 이남지역 주둔 장병 및 예비군, 군인가족 등을 위하여 수차에 걸친 방송망 확장을 위하여 관계부처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관계당국의 이해 부족으로 실행되지 않고는 있으나 언젠가는 실행될 전국 방송망 확장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은 우리 의 국군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시대 발전에 맞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방송국을 설립하여 TV 및 라디오를 통해 그들이 바라

는 수준의 군 특수 프로그램 방영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튼튼한 국방력을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 제각기 맡은 분야의 일을 충실히 이행할 때에 발전하는 당해문화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 날을 기대한다.

2. 설립목적

국군방송은 조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와 숭고한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군인정신을 일깨워 주는 한편 주체적 국방의식과 초전필승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병영생활에서의 정서 순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데 있다.

3. 필요성

한 국가의 국력을 평가 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겠으나, 과거와는 달리 경제력, 군사력, 문화 성숙도에 의해 국력이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 군사력 평가는 다시 유행전력과 무형전력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되는데 아무리 물자나 장비가 풍부하고 우수해도 교육훈련의 부족이나 정신전력의 낙후는 전장에서 패배만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군의 사기를 배양하고 정신전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현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직접적인 교육방법 보다는 간접적인 교육방법이 오히려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금 국군장병의 대부분이 신세대 환경에서 성장되었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주입식의 정신전력 강화 방법으로는 오히려 역 효과밖에 초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매체이며,

국군방송은 조국을 지키는 국군장병에게 송고한 민족정신과 진정한 민족주의로 무장한 군인으로 성장시켜 주는 한편 병영생활에서 정서순화와 사기진작, 그리고 확고한 안보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필요로 한다. 또한 국방정책의 홍보를 통해 민·군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국군방송이 차지하는 위상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4. 국군방송의 역사

4-1. 국군방송의 여명

(1) 광복군 시절의 방송활동

광복군은 항일투쟁의 필연성과 조국광복의 당위성을 만방에 선포하고 우리의 분산된 역량을 광복군에 집중하여 전면적인 광복전쟁을 전개했다. 조직적인 군사조직과 훈련은 물론이고 선무공작을 실시해 밖으로는 우리의 과거투쟁의 역사와 현재의 분투상황을 알리고 안으로는 우리민족의 독립자격과 당위성을 천명 선양함으로써 동포들을 고무 격동시켜 광복군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전시 수도인 중경시 국제방송국을 이용하여 정훈처 주관으로 선무방송 활동을 실시했다. 또, 광복군의 당면공작에 관해 장문의 호소문을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리게 했고 범 국민적인 봉기를 촉구함으로써 중국, 만주 일대의 동포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각종 대적활동과 선무공작을 통해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1944년 8월에는 광복군 제1지대(호남성, 강서성 지역) 간부12명을 정공간부학교에 위탁 교육시켜 선전공작과 문화공작 활동을 전담케 하였고 애국가를 포함해 많은 군가를 제정·보급 하므로써 광복군들에게 사기를 드높이기도 했다.

(2) 해방후 방송활동

1945년 9월 9일 미군정청은 경성방송국을 포함하여 전국의 방송국을 인수받고 미 고문관 3명을 파견해 이를 관리했다. 1946년에는 군정청의 개편으로 공보부를 강화하여 방송과 언론을 관리통제하게 되었다. 해방부터 정부 수립전까지의 방송활동은 미 군정청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철저한 감독과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방송협회와 대한방송협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일제시대 체제를 답습할 수 밖에 없었고, 군정청의 관리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군이 방송에 특별히 관여

하지도 않았다. 군정청 관할에 있던 국방 경비대대는 창군시부터 정훈인식이 부족, 일제시대의 군제만을 연상하여 보도대를 두고 제한된 정훈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업무는 미비하였다. 또한 오늘날 국방부의 전신인 통위부 내에 보도과를 두었으나 군정하에서 독립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았고, 더구나 공보부 방송활동에는 전혀 관여한다든가 참여할 생각도 내지 못했다. 아마도 독자적인 정신전력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조직법에 의거 국군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국방부는 국군방송업무를 담당할 정훈국이 창설 조직되었다. 최초의 정훈국은 중국의 직제를 모방하여 정치국으로 발족하였으나 활동은 매우 미진하였으나, 6.25 전쟁직전에야 정훈국 보도과에 방송계를 두고 4명의 계원을 KBS 정동연주소에 파견하여 군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지원해주는 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3) 6.25 전쟁과 국군의 방송활동

6.25 전쟁발발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방송국은 KBS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KBS 서울중앙 방송국을 인계 받아 전황보도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북괴군의 서울 침범으로 서울 중앙 방송국을 포기하고 출력 500W밖에 안되는 대전 방송국으로 이동하여 얼마동안 사용하다가 다시 동년 7월 16일 대구를 거쳐 부산 방송국으로 이동해 중앙 방송국의 기능을 수행했다. 1953년 6월까지 3년 가까이 항도 부산에서 전시 방송업무를 수행했고 군방송 업무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1955년 국방부에서 발행된 “국방부사”에 의하면 “1953년 7월27일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국방부는 전시에 확장했던 정훈분야의 기구를 축소 조정하고 각군장병의 사기를 위해서 “국군의 방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매주 3회씩 서울 중앙 방송국에서 18시 15분부터 15분간 음악, 노래, 교육강좌 및 공지사항을 방송하여 청각을 통한 교육효과를 보고 있다”고 군 방송 관련내용에 기록되어 있다.

4-2. 국군방송의 태동

(1) 국군방송의 창설

1956년 국방부가 발행한 “정훈대계 I”에 의하면 “군방송의 활동은 6.25 전쟁중 국방부 보도과 주관 아래 공보처와 협조하여 서울중앙방송국에서 매주3회(1회15

분간) 씩 “국군의 시간”을 설정하고 방송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후 1954년 9월1일부터는 본격적인 프로를 제작하여 매일 2회씩 45분간의 방송을 실시하므로써 정규방송으로써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국군방송 창설이후 활동

1954년 9월 1일 국군방송이 창설되면서부터는 낮 12시 30분부터 13시까지 30분간, 저녁 6시 30분부터 6시 45분까지 15분간 방송했다. 1955년말 까지 방송한 편성내용은 보도 19.1%, 교양 69.8%, 오락 11.1%로 편성됐다고 “정훈대개 1”에 기록되어 있다.

1956년 2월 1일부터는 서울 제1방송에서 제2방송으로 옮겨서 송출했고 1959년에는 낮방송을 저녁시간대로 옮겨 방송했다. 1961년 8월 10일 KBS 제2방송에서 다시 제1방송으로 환원되면서 제1방송 시간대는 오후 6시 5분부터 6시 50분까지 45분간, 제2방송에서는 오전 6시 10분부터 6시 30분까지 20분간 방송하므로써 1일 총 65분간 방송시간이 증가됐고, 1971년 4월 4일까지 방송시간을 유지하였다. 1971년 4월 5일부터 KBS 제2방송이 600KHz에서 970KHz로 전환되면서 아침시간을 5분 연장하여 1일 70분으로 방송시간이 증가되었다.

1962년 8월 21일 KBS 정동연주소가 남산연주소로 이전하면서 국군방송 전용 스튜디오도 확보하여 최신형 장비로 시설을 보강하여 활발하게 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조직은 1963년 12월 14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훈국 방송과는 군방송실로 개편되어 국방부 직할 기관으로 독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한국공개방송의 효시이며 국군방송의 최장수 프로그램인 위문열차가 1961년 10월 23일 당시 공군중사였던 후라이보이 광규석의 사회와 페티 김, 박재관, 명국환, 김치켓등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한가운데 발차하여 지금까지 2000회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3) 국군방송의 해외원정

1965년 파월이후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설치되면서 국회에서 1965년 9월 25일 월남에 우리말 방송국 설치의결됨에 따라, 국군방송은 기술부장을 단장으로 월남 방송국 설치를 위한 실무진을 파견하고 곧이어 우리의 외무부, 월남정부, 연합군등과 긴밀한 협조 끝에 65년 12월부터 73년 2월까지 사이공, 나트랑, 퀴논, 호이안,

투이호아등 5개소에 주파수 1440KHz와 1400KHz로, 출력은10KW 1곳, 5KW 2곳, 1KW 2곳 등으로 국내 방송국(KBS, MBC, DBS, CBS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끝된 프로를 복사하여 현지에 공수한 7시간분과 자체제작 2시간분을 합쳐 도합 1일 9시간씩 우리말 방송을 실시했다. 한국 최초로 해외 우리말 방송국을 개척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파월장병 및 기술자에게 사기를 북돋워 주며 살신보국의 정신으로 봉사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1972년 2월 청룡부대가 귀국함에 따라 호이안 방송국부터 폐쇄하고 방송장비와 기기들을 철수시켰고 한국군이 전면 철수함으로 월남내 퀴논방송국, 나트랑방송국, 사이공방송국과 투이호아 중계소를 차례로 폐쇄하고 사용했던 모든장비를 1973년 3월 17일 한국으로 수송했다.

방송장비가 고가였고 그 당시 한국 방송계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귀한 장비가 많았기 때문에 훼손시키지 않고 국내로 후송 난청지역 (원주 10KW, 인제 5KW, 양구 5KW)에 송신기를 보강하므로 가청지역 확장에 일익을 담당했다.

4-3. 국군방송의 성장

국군방송은 KBS 정동연주소 별관의 2평도 안되는 간이 녹음실에서 스튜디오 한개없이 WEBSTER 녹음기 2대와 제작진 13명이 KBS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45분짜리 방송을 제작 방송하면서 시작되었다. 1960년 7월에는 학수고대하던 스튜디오 1개를 신설할 수 있었고 마그네코다, 콘솔등 신형장비를 설치하여 그런대로 체면유지는 할 수 있었으나 스튜디오 부족으로 KBS의 스튜디오가 비는 시간을 주로 이용하였다. KBS도 공보처 산하 국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상통하였고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해서 늘 협조가 잘되었다.

1957년 12월 10일 KBS 남산연주소도 준공되고 KBS 기구변동과 함께 1962년 8월 21일 정동연주소에서 국군방송도 남산으로 이전하였으며 전용 스튜디오인 제9연주소(4평)도 확보하고 최고의 방송기기도 설치하면서 활기를 찾고 한단계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다. 국군방송이 남산연주소로 옮긴 이후 1966년부터는 주월한국군 방송국을 리모트 콘트롤하는 주조정실 역할도 겸하게 되었다.

4-4. 국군방송의 성숙

국군방송은 6.25 전쟁을 전후해 여명기를 거치면서 5.16 이후 여건조성과 월남파병에 따른 주월한국군방송 활동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끝에 KBS 남산연주소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국군방송의 독립청사를 갖게 되므로서 국군방송의 성숙기를 맞게 되었다.

국방부는 국방부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합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정훈업무를 수행하고자 현위치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산2번지에 가칭<정훈종합센터>를 건립하여 각각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방송실, 국군신문제작소, 국군영화제작소를 한 건물에 위치시켜 유기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1974년 기공식 후 2년여의 각고 끝에 공개방송홀을 포함하여 5개의 스튜디오가 설치된 신청사로 1975년 11월 27일 국군방송의 입주, 주월 한국군 방송국 장비 인수 및 보강, 인원도 20명에서 28명으로 증원등 기구의 개편과 함께 국군방송 전요원들에게 새희망과 꿈을 갖게 했고 새로운 각오로 전 장병들에게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수 있게 되었다.

1976년 4월부터는 보다 넓은 지역에 보다 상쾌한 음질의 국군방송을 보급하기 위하여 군FM방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독자방송 체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그해 11월5일 체신부로부터 화악산 송신소의 96.7MHz(5KW)의 주파수를 할당 받았고, 국군방송은 FM 방송확장 사업을 통해 독자방송으로 발전코자 하였으나 1977년 8월 9일 취소통보로 차선의 방책인 KBS와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FM 방송을 확장하였다. 1978년 1월부터는 국군FM방송이 실시됨에 따라 제작진을 강화하였고 1일 3시간 방송에서 1979년 1월부터는 5시간으로 증가되면서 국군방송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갔고 활성화 되어 갔다. 1979년 7월2일 국방부 홍보매체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군방송실, 국군영화제작소, 국군신문제작소가 잠정 통합 운영토록 되었고, 1981년 11월2일에는 국군홍보관리소가 정식 창설됨에 따라 국군방송실이 국군홍보관리소 방송부로 직제가 바뀌게 되었다.

1981년 1월 5일부터는 MBC에도 1845-1900까지 55분간 KBS와 같이 국군방송을 중계하도록 되었으나 1988년 10월 24일부터 군관련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방영한다는 통보와 함께 중단되었다.

1993년 11월1일부터는 FM 스테레오 방송 시작과 함께 1일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방송시간이 연장되었고 그후

1996년 11월 1일부터는 현재와 같이 10시간으로 확장해서 송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는 인원 증가없이 방송시간만 2차에 걸쳐 늘어났기 때문에 방송제작에 어려움이 따랐으나 1996년부터 시작된 방송제작시설 자동화 사업으로 어느정도 만회할 수는 있었다.

5. 국군방송의 기술 발전사

5-1. 국군방송의 창설

1954년 9월 1일 KBS 정동 연주소 별관에 간이 사무실과 녹음실을 마련하고 웨스터 녹음기 및 조정기 각 1대씩을 설치하고 총인원 13명이 3.3평의 좁은 공간에서 KBS 제1방송 중파 970KHz 를 통해 “국군의 방송”을 실시하였다.

그해 12월에는 마그네코다 자기식 테이프용 녹음기 1대와 마이크 1대를 구입하여 군방송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1955년 5월 민병대 사령부 해산 덕분에 테이프용 녹음기 2대를 인수해 이동녹음까지 가능했다고 한다. 당시 국군방송의 시설과 기제는 수준이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정동연주소 별관에 사용하던 스튜디오는 방음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내부에 담요같은 천을 대고 방송을 제작했다고 한다. 1960년 7월에야 정동연주소에 스튜디오 1개를 신설하고 신형장비를 도입 설치한 장비가 마그네코다 녹음기 콘솔, 턴테이블 등이었다.

1957년 남산 연주소가 준공된 뒤 정동연주소에 남아 있던 국제방송이 1962년 1월 27일 남산으로 이전하면서 국군방송도 그해 8월 21에 정동연주소 생활을 끝내고 남산으로 옮겨 제9연주실을 대여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때 설치한 장비는 Ampex 351 녹음기, RCA 2CH Console, RCA Turmtalble, RCA 77DX 마이크, 커트머신 등이었는데 이중에는 RCA 콘솔은 당시 KBS에서도 보기 힘든 최신장비였다고 한다.

5-2. 주월한국군 방송국 설치운영

1965년 9월 국회에서 주월 한국군을 위한 방송국 설치가 의결되었고 그해 10월 20일 현지방송국 설립을 위해 국군방송 직원들이 포함된 실무요원 1진이 월남으로 파견되었다. 파견된 국군방송 실무진들은 1965년 11월 15일 월남의 퀴논에서 월남방송국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중파 610KHz출력20KW 및 단파 7.265MHz 출력

5KW로 하루 25분씩 국군의 방송을 시험적으로 실시한 끝에 12월 2일 부터는 한국에서 정식 프로그램 테이프를 송부받아 방송을 실시했는데 12월 6일 정식으로 월남정부 당국에 무선국 설치 허가를 얻어 1965년 12월 11일 주월 한국군 사이공 방송국이 1440KHz, 지방국은 1400KHz의 주파수를 할당한 공문이 주월대사를 통해 전달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국준비를 위해 1966년 2월 22일 KBS직원을 포함한 방송요원 13명이 월남으로 파견됐고 3월 2일에는 귀논에서 50W의 시험방송을 거친후에 4월 15일에는 귀논 맹호방송국을 설립하고 주파수 1400KHz, 공중선전력 50W 전파를 발사함으로 한국방송사상 해외 방송국의 개국을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군의 작전지역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집에 따라 50W의 소출력으로는 큰 효과를 못보게 되자 개국 2개월만에 250W로 증강되었으나 미군사령부측과 협의한 끝에 1969년부터 1971년 사이에 사이공 1440KHz 10KW, 나트랑 1400KHz 5KW, 귀논 1440KHz 5KW, 호이안 1400KHz 1KW, 투이호아 1440KHz 1KW 등 방송국의 출력을 높이게 되었다.

이들 방송국들은 1973년 3월까지 주월한국군이 전면 철수할때까지 KFVN(Korea Forces Vietnam Network)라는 호출부호로 고국을 그리워하는 장병들을 위로해 주면서 사기를 높여 주는 방송을 실시한바 있다.

1973년 3월 17일 각방송국에 설치한 방송시설이 한국으로 철수됨에 따라 전방장병들에게 방송을 통해 정신무장을 강화시키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전방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국군방송을 독자적으로 실시할 의도였으나 KBS측이 주월방송장비를 양도 받아 휴전선 일대와 민통선 북방 통일촌 지역의 난청지역을 해소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양도요청이 있었으므로 인계하였으며, KBS는 이장비를 인수받아 원주, 양구, 인제에 설치하여 1974년 6월 25일 방송을 개시하므로 국군방송 및 KBS 본방송 난청지역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5-3. 이동방송차 도입 및 운용

1970년 국군방송은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로 중파 이동방송차를 운용하였는데 처음부터 완전한 중계용 방송차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국군방송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조립된 것이었다. 이동방송차는 1971년 4월 30일 무선국으로서의 정식인가를 취득하고 중파

13480KHz 50W로 전방 난청지역에 이동하면서 현장감 있고 생생한 방송을 전해주는 등 오랜 기간동안 큰 역할을 담당했다.

5-4. 국군홍보관리소 창설

(1) 독립청사로의 이전

1975년 11월은 국군방송이 창설된 이래로 오랫동안 정들었던 KBS 방송국 건물을 떠나서 사무실6개와 5개의 스튜디오가 확보된 용산구 용산동 2가 산2번지 현재의 건물로 국군영화제작소 및 국군신문제작소와 함께 상주하기 시작했다.

(2)국군홍보관리소 시대

1979년 잠정 통합운영에 들어갔던 국군방송, 군영화제작소, 국군신문제작소는 1981년 11월 2일 국군홍보관리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되었고 군방송실은 홍보관리소 방송부로 개칭되어 그 모습이 새로워지고 이로써 더욱 효율적인 홍보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5-5. 국군FM방송 실시

국군방송은 1976년 4월 1일 군FM방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FM방송 제작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1976년 11월 5일 체신부 전파관리국으로부터 96.7MHz의 주파수를 허가받고 12월 31일 FM방송을 자체적으로 송출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방송매체를 공사화하기 위한 방송일원화 정책으로 독자방송국 설치계획이 취소되었고 국군방송이 도입한 FM장비는 KBS와 공동사용하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KBS 제4FM으로 허가를 받게 되었으며, 이어 10월 12일에는 국군방송에 주조정설을 설치하고 KBS와 STL 중계망을 설치하였으나 KBS와 사용협약에 따른 결론을 얻어내지 못해비상용으로 설치되었다가 1995년 철거된 바 있다.

화약산에 이어 국군FM방송 송신소 개국일자 및 주파수 출력등은 1979년 8월 15일 용문산 101.1MHz 3KW, 같은해 10월 21일 배방산 92.5MHz 3KW, 1981년 1월 1일 백령도 89.5MHz 500W, 1985년 1월 1일 대암산 101.5MHz 100W, 1986년 9월 19일 기린 93.3MHz 20W, 1996년 9월 19일 대성산 97.7MHz 20W등 7개 송신소와 STL 중계국은 여의도 KBS를 포함하여 태기산과 대관령 3곳이 있다.

KBS와 국군방송간의 중계국 활용 좌절은 매일 10시간분의 방송TAPPE를 오전 오후 두차례 수송 하여 방송이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답답할 따름이다.

5-6. 스테레오 전환

1977년 국군장병의 정신전력 강화와 정서순화를 위해 실시되어온 군 FM방송은 1988년 2월9일 MONO 방식에서 STEREO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우선 스튜디오 제작시설을 개수하여 스테레오 장비를 설치하고 송신시설도 바꾸기 위해 기존 송신기를 전환하는 것이다. 그해 12월 15일 스튜디오 시설개수를 시작으로 1989년 7월부터는 전 스튜디오에서 스테레오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전송신소에 대하여 1993년 체신부의 변경신고를 거쳐 1994년 2월16일 정식허가를 받고 1994년 3월 1일부터 정규 군FM 스테레오 방송을 실시하게 되었다.

5-7. 군 FM 방송망 확장

현재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7개의 송신소는 그 가청지역이 경기, 강원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 및 후방지역 장병들과 국민들에게는 군홍보가 불가능하다. 또 국군방송 프로그램 방송도 AM방송은 KBS 제1라디오를 통해서 하루에 30분간 전국적으로 청취는 가능하지만 국군FM방송(KBS 제4FM)은 매일 10시간 전방지역에서만 청취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군FM 방송 가청권 확장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로는 1989년 2월27일 자로 KBS에서 국군방송에 할애하는 시간이 5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었고, MBC는 전면적으로 군방송시간을 폐지하였으므로 민·군간의 일체감 조성과 안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민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군 FM방송이 전방에만 한정되어 후방지역 장병들에게 정신교육 방송으로서의 기능수행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1989년부터 세운 군FM방송 전국 가청권 확장사업은 원래 중남부지역에 송신소 9곳을 증설하여 전국을 군방송 가청권으로 형성, 효과적인 정신교육을 이 가능하고 총력안보를 위한 홍보 및 국민 정신계도 차원과 신속한 명령하달 체계와 대적 심리전 방송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군방송측의 계획은 관계당국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에 다시 세운 FM방송망 확장계획은 각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지역과 서해안을 카바할 수 있는 관악산(남산 또는 안양수리산)지역으로 가정하고 일일 8시간에서 종일방송을 추구하고 추진을 하였으나, 이도 역시 관계당국의 이해부족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국군방송측의 계획이 각 관련기관의 반응이 여의치 못함에 따라 실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방송국 허가 추천기관인 공보처에서 다소 개방적으로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도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았고 선거공약등에서 약속한 지방방송과 종교방송만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국군방송은 군부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성중계와 소출력 중계기를 이용하여 확장할 계획은 변함이 없다.

5-8. 현재의 기술현황

늘어나는 방송시간과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제작업무, 늘어나는 방송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인력확보가 필수 조건이나 늘어나기는 커녕 줄어드는 기술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컴퓨터를 활용하여 전 제작시설을 자동화하고 있다. 1997년까지는 모든 스튜디오의 제작시설이 자동화 되고, 1998년과 1999년은 기존 자동화 시설보강과 송출준비가 완료된다. 따라서 국군방송과 KBS간에 테이프 전달방식에서 유.무선을 활용한 매체 전달방법으로 바꿀 계획이다.

5-9. 미래의 국군방송

국군방송은 자동 송출시설까지 구비하고 전 시설을 자동화한 후 송신소까지의 유.무선의 중계방식에서 위성 중계방식으로 바꾸어 부대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소출력 무인 송신기를 다수 설치하여 전국을 카바하는 방송망으로 확충하고 아울러 TV방송을 통해 세계 제1의 강군 육성과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선봉장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군인상을 홍보할 것이다.

6. 결론

이렇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우리 국군방송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란만

장의 고초를 겪었으나 그 결과는 과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현재 대성산 및 백령도는 군부대 시설 및 국군방송 시설물을 활용하고 있으나, 화악산, 용문산, 패방산, 기린, 대암산, 태기산 등의 송신소와 첩탐은 KBS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출력 무인 송신기를 부대 내에 설치, 국군방송의 가청구역을 확장할 계획인 바 관계기관 및 KBS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고 싶다.

참 고 문 헌

- [1] 국군홍보관리소 발행 국군방송사 1988
- [2] 국군홍보관리소 발행 국군방송 40년사 1994
- [3] 기타 다수의 관련공문서 및 문건, 자료

필자소개

김 상 훈

- 서울산업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1990. 12~1993. 2.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레이저센터에서 전자광학분야 기술연수 국비유학
-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매체공학과(석사과정)
- 1977. 11. 1~1995. 10. 8. 국방부 방위산업국 및 획득개발국에서 야시장비, 레이저장비, 적외선열감지장비등 수종의 첨단 전자장비 국내개발 및 생산을 위해 일익을 담당
- 1995. 10. 9.~현재 국군홍보관리소 방송기술과장